

수업은 허공에 발자취가 없고 사  
문에게는 다른 뜻이 없다. 만  
들이건 것은 항상 머물지 않  
나, 깨달은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法句經·진구루 255절)

# 東大新聞

발행 주최	편집 국장	인간 부장	민중 부장	법률 부장	문화 부장
1992년 2월 26일 (수요일) [ 1 ] 서울·경주 졸업식 거행 박사 52명 배출...전교 수석에 손승호군					

제 1091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9.10.10 제 9 등록번호(가)남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 (단기 4325년) 2월 26일 (수요일)

[ 1 ]

## 등록금 19%인상 발부

### 총학, 등록연기-고지서 반환투쟁 전개키로

9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지난 11일 전년도보다 19%인상되어 발부됨에 따라 학교당국과 학생회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4차례 걸친 등록금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내용을 내오지 못한채 학생측은 일방고지에 맞서 등록연기와 고지서 반납으로 맞서고 있어 이후 학교당국과 학생회간의 갈등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회측은 협상과정을 통해 △예·결산자료공개의 구체화 △재단전입금의 확충 △재단전입금 확충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재

단일부 관계자의 협력이불배석 요구 △인상률의 기준은 학생기준이 아닌 학년기준 적용 △91년 등록금협상시 합의한 내용의 이행 촉구 △학생회비의 통합고지서 발부 등을 내세웠다. 또한 학교발전을 위한 장, 단기 마스터 플랜 제출과 학교단위 복지계획안의 제출도 요구했다.

학교당국의 실무협상 대표인 조희영(경영학) 기획조정실장은 고지서 발부에 대해 "고지서 일방발부에 대해 학생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학교당국은 지난 8일 2차협상시 10여시간에 걸친 협

상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사인정상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기확실장은 학생회비의 통합고지서부본안에 대해 통합고지서 교육부로 부터 지적을 받게 돼 국고보조금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고지가 불가피했음을 밝혔으며, 예·결산자료 공개에 있어서도 타대학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관행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예결산자료의 공개거부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광집(전기4) 총학생회장은 "고지서를 발부하는 대신 학생측의 안내문을 동봉할것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학원자주화 투쟁위원장 한승우(야간 경제4)군은 "학교당국이 지난 91년도에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이와같은 이의 이행을 촉구했다. 학생측은 지난15일 사범대 도서관에서 단과대 등록금협상 단위주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투쟁교양학급'을 진행시키는등 이후에 속개될 학교당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할 대책 강구에 힘쓰고 있다. 한편 경주캠퍼스 학생대표들은 등록금

협상부분에 걸친, 경주캠퍼스의 서울캠퍼스에 대한 행정명의로 등록연기와 고지서발 학생회로 반환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재학생들 가정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려내고자 지난8일 총학생측 명의로 등록연기와 고지서발 학생회로 반환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재학생들 가정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92학년도 서울캠퍼스 전기 학위수여식이 어제(25일)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오인갑이사장, 민병천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권만준(불교학)씨를 비롯한 박사52명, 석사 2백50명, 학사 2천1백39명등 총 2천4백4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서 전체수석은 평점 4.5만점에 4.33점(다학점 취득)을 얻은 손승호(경제학과)군이, 전체차석은 4.33점을

## 서울·경주 졸업식 거행

### 박사 52명 배출...전교 수석에 손승호군

92학년도 서울캠퍼스 전기 학위수여식이 어제(25일)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오인갑이사장, 민병천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권만준(불교학)씨를 비롯한 박사52명, 석사 2백50명, 학사 2천1백39명등 총 2천4백4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서 전체수석은 평점 4.5만점에 4.33점(다학점 취득)을 얻은 손승호(경제학과)군이, 전체차석은 4.33점을

얻은 박경숙(불교학과)양이 차지해 각각 총장상과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각 단과별 수석졸업자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학과및 평점)

△불교대=서대용(선학과, 4.26) △문과대=최경윤(영문과, 4.19) △이과대=윤현연(수학과, 4.16) △법과대=이재수(법학과, 4.12) △사범대=선영란(행정학과, 4.11) △경상대=이광재(무역학과, 4.27) △농과대=최희경(농학과, 4.12) △공과대=이주환(전자공학과, 4.14) △사범대=김용철(지교과, 4.22) △예술대=배순덕(미술과, 4.16) △이부대=권순옥(영문학과, 4.21)

한편 경주캠퍼스 91학년도 학위수여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10명및 수료 32명, 학사 1천5백22명등 총 1천5백64명에게 학위및 수료증이 수여된다.

경주캠퍼스 전체수석졸업은 평점 4.5만점에 4.28을 얻은 최미경(한문학과)양이, 차석은 4.23을 얻은 염종기(한문학과)군이 각각 차지했다.

각 단과수석은 △인문대=최은희(국문학, 4.22점) △자연대=기영미(생물학과, 4.23점) △법정대=김승경(행정, 4.23점) △사범대=장화정(관광경영학과 4.17점) △한외과대=이승연(한외학과, 3.74점) △의과대=김성자(의학과, 4.20점)등이다.

### 본사 14대 주간애 최순열 교수



본사 14대 주간애 최순열(국어교육)교수가 지난 1월 15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최주간은 72년 본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87년에 본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부임, 동대교육방송국 주간을 역임하였으며, 재학중 본사 취재부장을 지낸 본사 동인이기도 하다.

한편 전임 주간인 박영길(법학)교수는 지난 89년 2학기부터 재직해 오면서 91년 2학기에는 전국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교수동정

▲이기동(사학)=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동아시아역사 국제심포지움'참석차 일본 동경 체류.

▲김상규(토목공학)=지난 3일부터 19일까지는 논문발표를 위해 뉴질랜드 체류.

▲이승영(무역학)=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리더쉽 및 커뮤니케이션 워크샵' 참석차 지난 14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체류.

▲박준환(법정대·행정학)=본교특별기금에 의한 해외학술연구차 오는 3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국에 체류.

### 제1백14회 재단 이사회 인사제청·추경 예산안 심의

제1백14회 재단이사회가 지난 24일 오전11시 오인갑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1년도 추경예산안 △신규교원 인사 제청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92년도 초·중·고등학교 예산안 확정 △91년도 경주병원 예산 심의 △화교재원 발행보고 △

경주병원 회계재정과목 변경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신규교원인사제청에서는 경주캠퍼스 국사학과가 제의되었으며, 교원인용부분은 이형기(국문학)부교수의 41명이 오는 4월1일자로 승진하며 채택수(선학)교수의 18명은 오는 3월1일자로 재임용됐다.



△지난 14일 기획조정실에서 학교당국·학생측과의 3차 협상은 진전없이 결렬됐다.

### 일본 龍谷대학과 자매결연 1년에 3명씩 학생 교환등 합의

일본 龍谷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지난 13일 일본을 방문했던 민병천총장과 오인갑 이사장은 지난 17일 용곡대학(Ryukoku University)은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1679년에 개교해 3백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이 체결된 '학생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1학기나 1년동안 양학교 3명이

### 학사 보고회

서울·경주합동으로

92학년도 제1학기 학사보고회가 오는 26일 오전11시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신규교원 소개, 서울·경주캠퍼스 각부처별 보고등으로 열린다.

### 교수회 정기 총회

규정개정안등 논의

교수회 제2학기 서울·경주캠퍼스 합동 정기총회가 오는 26일 소피텔 엠베서더 학사보고회에 이어 열린다.

이번총회에서의 주요안건은 교수회규정 개정안,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등이다.

준비된 개정안으로서의 교수회규정은 운영상의 문제점과 중복부분의 정리, 미비점 보완,의결순위 재조정등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또한 인사제도 개선안으로는 교수정년보장 지급 및 근무기간 경력인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 후기대 경쟁률 3.91대 1

92학년도 후기대 입시가 서울캠퍼스 총20개학과 5백60명 모집에 1천7백87명이 지원해 작년 4.27대1보다 다소 낮은 3.91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 10일 동국대에서 실시

후기대 전형일이었던 지난달 22일에 발생한 시험지 도난사

###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계종은 그 연원이 중국

의 소식은 알고 있었던 터라 할로써 응수를 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임제선사 앞에서 해보인 것이니까 보통내기는 모두를 무로 돌리는 일은 아니다. 우리는 외부세계의 존재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불교는 분별을 가릴데란 없고 일상 그대로 웃을 일고 밤을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이다. 의경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바보로서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隨處作主),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전여 바로 그것이다(立處皆眞)고 하였다.

남산 코끼리의 기상! 그 숲속에서 학덕을 길고 닭은 울음소리 모두가 이 사회의 각 개각중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상대를 내 인생의 대열에 올려 놓고 의식하지 않고 본 분사를 다해 나갈때, 그 동문은 어디서나 주인이 되리라.

崔玄覺

###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

아니겠을 것이다. 선사가 중국에 요구하는 바는 본래면목의 자리, 주객미분의 절대계를 추구한 나머지, 미혹에 머물러도 안되고 깨달음에 머물러도 안패서, 그것이 어떤 경계이건 간에 생긴 것이 있는 바에는 다소 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일체를 소탕하는 것은

### 91학년도 학위수여식 기념 축하광고

##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으로



지금 이 길을 감에  
그대 홀로 가는데 아닐세.  
우리는 모두 한걸음을 때는  
설레이는 순간에 우뚝 서  
함께있는 동무로 바로본다.

좌절과 환희의 4년,  
미친듯 휘청이는 시대속에  
우리는 온 몸으로  
바로 잡음의 몸부림을 쳤지.

동대신문사

사설

재정확보에 학교당국·재단은 공동 노력하라

92학년도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19%인상돼 학교 당국에 의해 일방발부됐다. 지난해 2월 1차협상을 시작으로 내차례에 걸친 등록금 협상...

제24대 총학생회도 '재단혁신과 등록금 민주적 책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교육정책화, 예·결산공개, 재단전입금 확대...

등록금협상도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등록금협상시 인상률조정에 주안점이 가고 재단혁신이 부차적으로 따랐던...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등록금부족은 이제 근원적인 교육정책의 문제에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론이다. 즉 재단의 전입금확보와 국가교육...

문제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직접협상에 임하는 학생회간부들의 책임있는 자세이다. 일방고지서 발부로 인한 학생...

이제 곧 개학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왔을때 등록금발전에 대한 고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와 학교당국, 재단은 등록금...

매일 10% 연체...도서반납기한 지키자 모두의 재산 도서관 장서 깨끗이 사용해야

도서관 장서-이것은 동국인 모두의 것이다. 어느 누가 독점해서도 안되며 누구나 필요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 장서의 양과 질에 따라 그 학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장서에서 학생들이 애교심을 발휘한다면 도서관 장서정리기간이 짧을 수 있다.

매일 10% 정도의 연체가 발생하며 1개월 이상의 장기연체도 매일 7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92학년도 총입자중 연체로 각 교과과목...

도서관 장서는 한결 한결 등록금 부족과 연체로 인한 장서의 귀중한 재산이다. 또한 이책들은 동국의 학풍을 이어갈 중요한 밑거름인 것...

이다. 도서관 장서의 양과 질에 따라 그 학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장서에서 학생들이 애교심을 발휘한다면 도서관 장서정리기간이 짧을 수 있다.

현재 도서관에는 많지 않은 도서 구입비에 연간 기백만원의 재비, 도서수리비를 지출하고 연체된 도서의 회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학생 여러분은 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모교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이 영원히 이용하여야 할 책임을...

김종철 (중앙도서관 열람계장)

열린글터

전교조 생계보조비 수사 생존권 위협 참교육 실현 위한 적극 투쟁 벌여야

결찰과 경찰은 전교조에서 사·지도부와 1백47개 시·군·구지회, 그리고 산하조직에 상근하는 1천명의 해직교사들의 생계보조를 위해서...

들의 의견을 분쇄하고 교육독점의 음모와 지배이데올로기 재생산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뻔한 발상에서 기인한다.

이제 전교조에서는 전국 차원의 '해직 교사 원상복직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전국민생명운동을 통한 대대적인 복직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후반기 수사, 조합간담 철거...

이제 전교조에서는 전국 차원의 '해직 교사 원상복직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전국민생명운동을 통한 대대적인 복직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후반기 수사, 조합간담 철거...

등록금은 오르고 장학금 수혜자는 줄고

'1백3만2천5백원' 작년보다 19%인상된 등록금, 그러나 한 과 한 학년에 단지 3명뿐인 장학금 수혜자수. 등록금은 오르고 장학금 수혜자는 줄다(?)...

어떻게 그것이 동식으로 되어 우리 부모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어머니마한 돈은 어디로 쓰이는지...

김진태 (사범대 교육학과)

이 늘어 등록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이는 예상했지만 1백만원이 넘는 돈을 매달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더욱이 내가 낸 수업료, 기성회비의 수치는 해마다 높아만 가고 재차라리 줄줄이 빠져나간다. 인제까지 높아만가는 등록금을 걱정하면서 학생들은 공부해야하는지, 그러한 한국사회 모순만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지, 정부와 학교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문병진 (경상대 경제학과)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겨 있는 글, 사진, 만화를 봅시다. 주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금수사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한다. 지금 현 정권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불법, 비리, 선거의 음모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김진태 (사범대 교육학과)

공간부족으로 동아리 활동 보장 안돼

건전한 대학문화주의의 기수로 노력하는 동아리들은 요즘 동아리방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54개의 동아리중 16개의 동아리가 방이 없어 강의실이나 2동아리의 1개방 사용, 그외의 다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이제 동아리방이 학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동아리간의 긴밀한 협조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운동장 사생활도 동아리의 경우 불분명...

본사 여론매체부에서는 신문평가, 여론수렴, 기사작성 등을 통해 동대신문을 함께 이끌어갈 모니터를 모집합니다.

문의: 260-3491~2

선·후배간 하나된 가슴벽찬 만남

입교식-영화상영 등 사전 준비 미흡 아쉬워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신입생 예비학교를 다녀왔다. 오전 10시 집결, 11시 승차, 12시 출발, 오후 3시 양평 프라자 리조벌 도착으로 일정은 시작됐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공동체놀이 했다. 서로 손을 맞잡기도 하고 몸을 부딪히기도 하면서 하나임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들며 아침식사를 마치고 새내기들끼리 모여 자기소개와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익혀 나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공동체놀이 했다. 서로 손을 맞잡기도 하고 몸을 부딪히기도 하면서 하나임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학생회측의 일방적 행사진행은 못내 아쉬웠다.

이 한 설(사범대 국교과)

들며 아침식사를 마치고 새내기들끼리 모여 자기소개와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익혀 나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공동체놀이 했다. 서로 손을 맞잡기도 하고 몸을 부딪히기도 하면서 하나임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제24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목 먹골

- 극예술연구회의 신매님 여러분이 졸업하신데요. 졸업을 축하드리며 졸업반이 꼭 찾아가세요. -극회회원 일동
■경일, 우숙, 우석형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東岳의 품, 늘 간직하며 생활하시고 통일조국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킴을 모르는 투쟁을... (후신:글도 많이 쓰시고요.) -민중문화의 새세대 동국문화회 회원 일동
■영진 지금 가졌던 삶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졸업 축하하고요. -현
■은동학을 휩쓸었던 만섭형, 영란형, 그리고... 이하... 떠나시디노. 전 어떻게 하리구요. 보내드리기 섭섭하지만 멋진 사외인이 되신다는데 할 수 없죠. 졸업 축하드립니다. -후배들
■일문과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다시한번 선배님들의 젊음을 분태위 사회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선배님을 사랑하는 일문과 '91 후배
■그리고...그럼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우리

동악! 광장

- 새내기, 동악의 당찬 주인입니다
■지리교육과 92학번들의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깨지고 느끼세요. -91학번대, 교육문화장 누님이
■신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Time만
■동국대학교에 오신 교장사님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생활하는 1년이 되십시오. -재동대 고창향우회
○축하합니다!
■졸업하는 지언(가교4)씨! 대학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을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태열
■우은식(농생3)형! 군인대를 축하합니다. 아워워하며... 잘 다녀 오이소마! -농생 '90, '91
■김혜영교수님의 임국을 식물유전학실 사람들 모두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88학번 영진·윤선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식물유전학실 귀영동이 '91
■지순아! 외무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낮선곳이라도 열심히 지내. -인도철화과 '90
○그리고...
■눈독이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필준이, 세경이, 혜숙이, 회진이, 정수 모두 방중에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힘내고 좀더 자주 만납시다. -동국문화회 '91
■진전하는 식공, 발전하는 식공, 영인한 식공 식품공학과 90학번의 영원한 우정을 기약하며... 3년후 뵈십시오. -군대가는 멋쟁이가

온방골

-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 힘을 점점 발휘하고 있는 임학과 학생들여러분! O.T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유익하고 재미있게 새내기들과 어울렸겠지요. 이제 다가오는 3월의 신선함과 함께 더욱더 서로의 단결된 힘으로 아픔을 견뎌내야겠지요. 힘찬 도약을 위한 우리의 힘은 순간 순간의 나태와 허식을 정확히 뚫을 것 입니다. I can't 이난 We can입니다. -소리부대표님 후배일동
■동행인!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큰 가슴으로 이사회를 안으시길 바랍니다. 졸업하시더라도 회피는 것 잊지마세요. -동행인 회장
■거려사랑(향수, 태배, 원숙, 주아, 정인형)졸업 축하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사당하는 후배위해 워드한대 사뵈고 가시길... -워드사기 원년 2월28일 투덜
■세백을 여는 사람들의 공원을 축하합니다. 식민적 조국의 신세백을 가 일관투쟁으로 안아주세요. 동지여러분, 힘입니다. -미스코트
■동국미래창조 불교아동 92새내기들이! 불교정도 그날까지 모두 끝없이 정진하고 성불하자. -불교아동 89장남이
■경호, 호진, 진욱형 군대가서 많이 얻어맞고 오소. -민중철학꾼들
■재복형, 성기형 '다들스러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대신문사기자일동



# 사회변혁운동 장기적 안목 필요

### 비판 전국연합 통합민주당 민중회의

## “독자적 움직임, 득보다 실이 많다” 대중력 확보위한 운동의 개량화 우려



▲전국연합 통합민주당 민중회의에 참가한 김대중(가운데)과 김근태(가장 오른쪽) 등 지도자들이 연설하고 있다.

들어가며 민족사회주의 노선의 급격한 종교로 일변되는 20세기 마지막 10년은 마르크스가 확인하였듯이, 이제 세계가 더 이상 개별적인 것들 개 머물지 못한다는 주지의 사실은 더욱 더 분명히 해주고 있다. 더욱이 민족사회주의 노선을 현실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남한 사회의 민족민주운동전선으로서의 이같은 충격적인 사태에 나침반을 잃고 방연자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의 무게중심은 이른바 '92-93년 정치정세'에 대한 대응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주도의 진보정당 건설을 모색해오던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민주당과 통합함에 따라 운동세력은 민주주의민중동맹전국연합, 통합민주당, 민중회의 등의 삼자구도로 정리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민중동맹의 역량 강화와 대중운동의 활발한 성장을 공방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들은 정세인식, 자체 역량 평가에 따른 총선과 대선의 합수관계를 설정, 더 나아가 비합법/반합법/합법의 비중 등에 대한 크고 작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단일한 대의의 마련이 무망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남한 사회의 개혁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세력들에 대하여, 우리는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향후의 운동전선에 어떤 특성이 나타날 것인가에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혁운동의 공적 목표가 사회주의적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올바른 평가와 예측의 '맛대'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제안하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민중회의는 공히 현정세를 '민중 대 반민중의 대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후보진영'으로 대변되는 이들은 전국연합의 '민주대연합'을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잠재우는 보수야당의 정치적 맹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전열의 정치적 진출로 인해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민중회의는 전자가 독자적인 계도권 정당화에 분투하는 반면, 후자는 '민중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가칭)'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범민중전열의 단일한 총선대응구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92-93년 정치정세를 향후의 운동전선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국연합, 통합민주당, 민중회의는 선거의 계기를 통하여 확대되는 정치공간을 이용하여 대중 또는 민중의 정치적 영향력과 조직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제의하고는 있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부문운동단체와 지역운동연합체를 포괄하여 숫자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연합은 총선투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일차적 목표를 민자당에 대한 심판과 민주국회의 재취로 설정하고, 대선과, 더 나아가 향후 보수대연합에 맞서는 항상적인 대의의 구축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한편 통합민주당은 제도권 정당화로서의 자리매김에 분주하니 만큼 운동전선의 향배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상태이며, 그 반면 민중회의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목표 아래 전면적 독자후보진영을 선거투쟁을 전개하여 민중전열의 정치적 발언을 확대·강화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에서도 보수야당과 구별되는 독자적 민중후보를 출마시킬 것을 공언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합, 통합민주당, 민중회의의 총선입장은 제각기다.

### 비합법/반합법/합법

개혁운동의 주체력을 어떻게 설정 것인가, 92-93년 정치정세를 사회주의적 전방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비합법/반합법/합법의 시 공간을 각자의 입장이 어떻게 매개시키고 있는가와 관련지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련하여 비합법/전위당, 전선당/반합법정치조직, 합법전선당/정당들의 3자 영역구도를 설정하고 그 매개 역할을 자칭하고 있는 민중회의는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연합은 전선적 성격에 머무는 수밖에 없는 구성단위의 절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민주당은 합법적 위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비합법 전위당 노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는다는 문제와 결부되어 민중회의의 노선은 단지 선언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적 전방을 가진다면, 그 정당은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의 시기차별적인 자발성과 명부성을 계획성과 지도성으로 승화시킬 조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연합은 민주주의를 언어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을 설정한 나머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에 대해 지극히 사회주의적이지 못한 입장이며, 통합민주당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기존의 투쟁과 율리하게 결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 한석원

(대학원 박사과정·정치경제학)

## 정치 냉소주의 총선여행... 또다른 강경대 부른다

정부는 3월24일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 다음달 7일 공식 공표할 예정이다. 선거를 늦출수록 경제·사회적 손실이 클 것을 우려했다는게 정부의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총선날짜'는 깊은층의 표정상을 의식한, '계산' 작전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다. 실제 총선 투표가 3월하순,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당시의 당에 유리하다. 아직 재야의 조직·투쟁력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깊은층의 표정상에 대한 여·야의 계산은 유권자를 표로 대상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난해 평역외 선거이후 대학가에 '최불암사리'가 유행했던 것과 관련, 정치 냉소·허무주의가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한 대학생의 말은, "이번 총선엔 어디로 놀러갈까"라고 고민(?)하는 모습은 지난해 4월26일 대학1년생 강경대군이 무참히 죽어간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의 진실을 무색케 한다.

강경대열사를 죽인 것이 정권이라면, 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 우리 역시 '살인범'인 셈이다. 임시공휴일을 이용해 무심히 떠나고, 깊은 여행이 '우리 친구의 또다른 죽음을 부르는 행위임을 기억하자. 결국 정지에 대한 냉소는 더욱 냉소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사회부)

정부는 3월24일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 다음달 7일 공식 공표할 예정이다. 선거를 늦출수록 경제·사회적 손실이 클 것을 우려했다는게 정부의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총선날짜'는 깊은층의 표정상을 의식한, '계산' 작전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다. 실제 총선 투표가 3월하순,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당시의 당에 유리하다. 아직 재야의 조직·투쟁력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깊은층의 표정상에 대한 여·야의 계산은 유권자를 표로 대상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난해 평역외 선거이후 대학가에 '최불암사리'가 유행했던 것과 관련, 정치 냉소·허무주의가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한 대학생의 말은, "이번 총선엔 어디로 놀러갈까"라고 고민(?)하는 모습은 지난해 4월26일 대학1년생 강경대군이 무참히 죽어간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의 진실을 무색케 한다.

강경대열사를 죽인 것이 정권이라면, 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 우리 역시 '살인범'인 셈이다. 임시공휴일을 이용해 무심히 떠나고, 깊은 여행이 '우리 친구의 또다른 죽음을 부르는 행위임을 기억하자. 결국 정지에 대한 냉소는 더욱 냉소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사회부)

## 관변단체 진여 선거운동

# 친목도모 속에 싹트는 '여당표'

## 전국 4백여개 관변단체...정권의 모세혈관

총선을 한달여 남겨 놓고 여·야의 선거운동이 치열한 가운데, 지구당대회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불법선거 운동감시체계가 활성화돼 있고 진보세력의 성장, 국민연합의 창당 등 여당에 불리한 조건으로 좌충우돌하는 '총선승리를 위한 작전'을 어느때보다 교묘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권을 이용해 여당의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시켰던 여권과 달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이를 여러차례 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장기집권을 노릴 수 있는, 총선에서 '확실히' 낙승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변단체 선거운동'이 가장 안정적이라는게 여당의 생각인듯 싶다.

이러한 여당의 속셈은 바로개살기운동협의회(이하 바살협), 각종 새마을조직, 자유총연맹 등 주요관변단체가 등·비등정기회를 포괄한 것, 이들의 정치활동 자금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이들 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높다는 점 등에서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대독이 지난해 11월,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바살협 육성법안을 강행하려던걸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다가가 총선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진여성향을 보이는 관변단체는 전국 4백여개에 이르고 등·면단위까지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도 10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살협으로 15개 시·도위원회, 3천482개 읍·면·동위원회, 12만명의 회원을 갖는 '정권의 모세혈관'으로 70년대 대를 해 가장 대표적 관변단체로 인정받았던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조직력, 예산규모를 앞질렀다.

지난 19일 신당2동 바살협 주최 '대포를맞아 웃음이대회'에서 주최 측은 "민자당의 입지가 넓어졌지만 어떠한 인사라도 하지 않았다"며 바살협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의식했다.

실제 바살협은, 주민간 친목도모를 주활동범위로 하는 관변단체는 선거때면 '사회안정심리'를 유포하는 플래카드를 사회불안을 벌미로 선거에서 이길려는 여당의 분위기를 맞춰준다. 또 관변단체주최 친목도모행사에서 그지역 출마자의 인사를 배려함으로써 야당·무소속의원에 대해 상대적인 선거운동 제약을 준다.

대독이 민자당 지구당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광범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이들 관변단체는 이 대회에 주민을 동원하기에 분주하고 심지어 민자당원 모집에도 '한몫'을 담당한다. 이미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의 노골적인 관변단체 활용은 현재로서는 21일자 1면에 폭로됐다.

그러나 이같은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이 '관변단체'만의 잘못은 아니다. 바살협, 자유총연맹 등 일부를 제외하고 농촌의 새마을부녀회나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그 나름의 활동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

다만 정권은 '순수민간'이기를 원하는 단체에 대해 구경의 인·허가, 공공조직의 위생단속, 생활보호자추진 등의 수단으로 빈민에서 중산층까지 그 구경의 목을 끈다.

결국 '관변'이라는 말은 '민의 정치활동'이라기보다 관의 민간단체개입'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관변단체의 선거운동은 오히려 '권력을 쥔 자가 권력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사회에는 YMCA 등 '건강한 사회'를 실천하는 민간단체가 많고 그 활동도 활발하다. 사실 '관변'이란 수식어만 붙이면 그 단체의 설립목적은 순수하게 살리려는 구성원의 자성과 이 단체를 감시하는 국민의 의해서만 지을 수 있다. 언제까지 각 민간단체에서 내거는 플래카드, 성명서를 여과해 수용해야 하는가? (이병민 기자)

### 진보세력의 정세 인식 차이

92-93년 정치정세에 대한 이들 정치 세력의 인식차이를 선거정국을 통해 보수대연합을 확고히 하려는 현정권에 대응할 주체력의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다. 우선 전국연합을 현정세를 '민주대 반민주 전선'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세 파악에 근거하여 전국연합은 총선에서의 대응구도를 '민자당 대 보수야당을 포함하는 범민주전열의 대립'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중앙단위에서의 상호교섭을 통한 후보단일화 노력이 민주주의의 거부되는 물론 민주당과 민중회의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무산된 상태이고, 이같은 사정에서 그간의 과정에서 전국연합과의 연대에 적극적이었거나 민주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설정을 고려하여 특정한 후보를 거명,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 가시화된 형태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민중회의는 공히 현정세를 '민중 대 반민중의 대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후보진영'으로 대변되는 이들은 전국연합의 '민주대연합'을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잠재우는 보수야당의 정치적 맹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전열의 정치적 진출로 인해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민중회의는 전자가 독자적인 계도권 정당화에 분투하는 반면, 후자는 '민중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가칭)'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범민중전열의 단일한 총선대응구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92-93년 정치정세를 향후의 운동전선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국연합, 통합민주당, 민중회의는 선거의 계기를 통하여 확대되는 정치공간을 이용하여 대중 또는 민중의 정치적 영향력과 조직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제의하고는 있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부문운동단체와 지역운동연합체를 포괄하여 숫자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연합은 총선투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일차적 목표를 민자당에 대한 심판과 민주국회의 재취로 설정하고, 대선과, 더 나아가 향후 보수대연합에 맞서는 항상적인 대의의 구축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한편 통합민주당은 제도권 정당화로서의 자리매김에 분주하니 만큼 운동전선의 향배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상태이며, 그 반면 민중회의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목표 아래 전면적 독자후보진영을 선거투쟁을 전개하여 민중전열의 정치적 발언을 확대·강화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에서도 보수야당과 구별되는 독자적 민중후보를 출마시킬 것을 공언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합, 통합민주당, 민중회의의 총선입장은 제각기다.

### 전망

우리의 우호적 정치세력들이 마련하고 있는 정세대응책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진보운동의 결실을 고스란히 보수야당에게 헌납한 88년의 부사판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

현실의 재관성과 결부지워 각자의 노선을 평가해 볼 때, 대담은 지극히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세인식, 선거에서의 주체력, 합법의 비중설정 등에서 나타나는

## 동막로

해마다 등록금 협상이 학교행정당국과 학생측의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학생측은 4차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서로의 울바를 대안없는 공방으로만 끝나는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바라 시간'이 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앓는 학생측대표들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등록금 협상현장을 지켜본 기자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지난19일 본단 기획조정실에서 협상시간이 한시간정도 연기된 4시30분이 돼서도 등록금협상이 시작됐다. 이날은 여러가지 문제로 학생측이 시작부터 학교당국과 마찰을 빚어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오전 11시30분경 총학생회 대표6명이 재단측을 방문하여 재단전입금 확대를 위한 매개고리

## 등투 담보물



포류하는 대학발전

로 책임있는 관계자의 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단측은 관에 박힌 형식적인 담보물 "등록금협상과정에서 재단이 어떠한 것도 약속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설득(?)을 받을 뿐이었다.

생 주수족을 요구하는 학생측 대표단에게 학교측은 이날 오전에 붙은 등록금 납입연기증 대자보의 내용을 문제삼아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사건이 이처럼 확대되자 학생측은 4차협상을 파기하자는 서울캠퍼스 주장과 이에 입장을 약간 달리하는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결과는 어쩔 수 없는 학교측의 주수족 제공과 더불어 일단락 됐다.

이날 4차협상에서 학생측은 학생회비 통합고지, 예정산자료의 공개, 19%인상분의 기준을 학생이 아닌 학년기준으로, 재단전입금의 확대를 요구하는 연에 강경하게 맞서는 학교당국의 방침으로 또다시 결렬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해마다 '한바탕' 벌이고 끝나는 연례행사가 아닌 학원자주화의 대의명분에서 실질적 내용성을 담보하는 등록금투쟁이어야 한다"는 대의를 오늘 동막로를 거닐 일민동약인들의 의지를 집약한, 강고한 구호로 모아야 하겠다. (조인환 기자)

### 중외제약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

# SPC '92 사은대잔치

세척하면서 단백질제거까지 저질로 되는—

중외 SPC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를 업서에 써 보내주시면, 추천하여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SPC는 이래서 좋습니다.

-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렌즈가 편합니다.
- 1일 1회 세척과 단백질제거로 렌즈가 항상 깨끗합니다.
- 수용성물질을 부드럽고 순해 눈에도 편합니다.
- 단백질제거제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경제적입니다.

편한 눈, 편한 관리—

## SPC 액

### 응모방법

아래 내용 중 하나를 골라 그 번호를 관제업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추천은 경찰관 입회하여 공정한 기어 이루어지며, 당첨되신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1. 렌즈관리방법이 편리하다.
2. 깨끗이 닦여 눈에 편하다.
3. 타제품보다 경제적이다.
4. 단백질제거와 세척이 동시에 된다.
5. 순해서 민감한 눈에 좋다.
6. 렌즈가 항상 깨끗하다.
7. 시간이 절약된다.
8. 믿을 수 있는 중외제품이다.

■ 보내실곳 : 151-600 남서울 우체국 사서함 96호 (주)중외제약 PM실  
 ■ 응모기간 : '92. 2. 24 ~ 3. 14일까지  
 ■ 발표 : '92. 3. 26일자 스포츠지

### 경품내용

1등	(1명) 100만원 상당의 제품선책 비디오 TV, 음향대중 TV, CD 플레이어, 오디오, E05카메라, 전자오르간, 세탁기, 휴대용 캠코더 VTR, 비디오카메라
2등	(1명) 50만원 상당의 제품선책 메리트 VTR, 음향대중 TV, CDP카세트, 오디오, 카메라, 방직,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CD 플레이어 오디오
3등	(1명) 20만원 상당의 제품선책 휴대용 CDP, 스피커, 카메라, 한국형 물걸레 청소용수기, 식기건조기, 중외 장수기, 슬래시 테니스 라켓
행운상	(100명) 드림 아티스트 웨도우

콘택트렌즈 관리상당심 운영 중외제약에서는 콘택트렌즈 부주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코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점·사업소 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사업소 상담실** ● 본사 : 841-1212 (동 283, 284) ● 북부 : 968-1332-5 ● 인천 : 83-4197, 7564 ● 수원 : 39-6220-1 ● 부산 : 531-7575-9 ● 마산 : 55-2256, 8161 ● 대구 : 354-5671-3 ● 광주 : 528-4806-8 ● 전주 : 254-3038, 77-0209 ● 대전 : 621-5981-3 ● 청주 : 57-1751-2 ● 원주 : 42-0401 ● 제주 : 52-5905

# 수혜자 인원 제한하는 새 제도 필요

## 신입생 장학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신입생 장학제도가 올 하반기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이미 올해 '신입생 장학금 사태'로 4년동안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학교당국으로서 동국대총동맹을 시설회를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이종고를 세워 왔다. 실제 신입생 장학제도 개정 논의는 직원들로부터 시작했으나 지난해 성적우수 신입생 유지를 목적으로 장학수혜커트라인을 280점에서 270점으로 낮춤으로써 올해 '큰코'를 다치고 말았다. 이에 신입생 장학제도 개정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92학년도 학력고사가 예년에 비해 훨씬 쉽게 출제됨에 따라 본교를 포함한 서울 시내 중상위권 대학에 고득점자가 속출, 이에 따른 장학금 재원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본교의 경우 신입생장학금이 연간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 4년동안 40억의 장학금이 지출될 전망이다.

### 1. 신입생 장학제도 개정론

신입생장학금은 원래 우수한 고등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당국은 작년 2백80점부터 주년 장학금을 2백7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올해 학력고사의 경우 예년에 비해 훨씬 쉽게 출제되고 20~40점정도 상하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된 2백70점의 경우 전체 합격자의 평균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에 지나지 않아 원래 취지에 상당 부분 벗어났다고 말한다.

결국 신입생 장학제도 하향조정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정책만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 장학제도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한 관계자를 "지급과 같이 신입생 장학제도를 계속 유지했을 경우 재학생등록금을 신입생에 거쳐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입생 장학제도 변경을 시사했다.

더욱이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93년 학력고사 또한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학교당국자 사이에서도 새로운 신입생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26일 일교부위원장회에서 결정된 후기에 신입생장학제도 변경을 보여 역시 나타난다.

이 역시 교육위원회는 후기에 신입생장학금 지급방법을 전기보다 10점정도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완전히 폐기하고 3백점이상 고득점자에 한해 92학기 특별장학금으로 등록금전액 1년간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신입생 장학제도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따라 오는 10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실처장이 참석하는 교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2. 18배 는 신입생 장학금

현재 신입생 장학제도는 명진특별 A·B, 명진 학원, 해학, 92특별(전 동국)장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기말 성적이 B(3.0)이상인 경우에 한해 4년간(단 협의에 의해 6

년) 계속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별로 놓고 보면 (표)에서와 같이 서울·경주캠퍼스가 3백점이상자에게 명진특별장학금(A·B)을 지급하며 서울캠퍼스 2백70점, 경주캠퍼스 2백50점이상자부터 장학금 혜택이 있다.

각 항목별 장학금수혜인원을 보면 작년의 경우 전·후기 모두 합해 14명(서울10명, 경주4명)에 불과한 것에 비해 전기의 경우 명진

## 지난해 비교 올해 수혜자 40배 증가

특별장학 41명, 명진장학 27명, 학원장학 41명, 해학장학 68명, 92특별장학 3백24명으로 총 5백44명이 장학금혜택을 받게 됐다. 또 후기의 경우에도 92학기 특별장학 수혜자가 49명이나 된다.

결국 장학금수혜자는 작년 14명(서울10명, 경주4명)에서 5백53명으로 40배, 장학금액은 한학기당 3천 만원에서 5억4천6백만원으로 18배가 각각 증가했다.

### 3. 재원 확보 고심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신입생 장학금액이 4년간 총 40억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학교당국은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심하게 나타나자 당초 2백60점이상자에게 주려던 장학금을 20점상향 조정해 2백80점이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해 학부모들로부터 반감을 샀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신입생들과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적은 본교의 재정난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학교당국은 재원확보 방법으로 등록금, 재단전입금, 은행융자 등 3가지 방안이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단전입금의 경우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고 부동산조차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어서 작년 10억보다 늘어난 가능성이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재단전입금이 작년 수준밖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의 인공인상이나 실현될 수 없는 인공인상, 학생회에서 내세운 문화공간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교운영비의 95%이상을 등록금에서 충당하고자 했을 때는

장학명	장 학 금 액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지급조건	지급조건	지급조건	지급조건
명진 특별 장학	입학금·등록금 전액 월 50만원 지급 (도시구입비 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310점 이상	학력고사 310점 이상	학력고사 310점 이상	학력고사 310점 이상
명진 장학	입학금·등록금 전액 월 30만원 지급 (도시구입비 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300점 이상	학력고사 300점 이상	학력고사 300점 이상	학력고사 300점 이상
명진 장학	입학금·등록금 전액 월 20만원 지급 (도시구입비 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후기 290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95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90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95점 이상
학원 장학	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	학력고사 후기 285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90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85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90점 이상
해학 장학	대학 4년간 수업료 전액	학력고사 후기 280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85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80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85점 이상
'92 특별 장학	대학 4년간 수업료 반액	학력고사 후기 270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80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70점 이상	학력고사 후기 280점 이상

(표) 92학년도 신입생 장학제도

### 4. 장학제도 개정방향

92년 학력고사는 이미 지나갔고 신입생 장학금의 급증은 학교당국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일은 93학년도 학력고사에서 어떻게 하던 우수신입생을 유치하면서 재

정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변경, 보완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 중상위권 대학이 신입생 장학금 재원확보에 고심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본 대학의 장학금 지급방법을 보면 홍익대의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전기 70명, 후기 30명을 뽑고 있어서 매년 똑같은 신입생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 특정과에 장학생이 몰릴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 올해의 경우 건축공학과에 대거 장학생이 몰리는 사태도 일어났다.

한양대는 지난 88년 본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89년 학력고사 때부터 전기의 경우 입학성적이 입학정원 10%이내가 아닐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보완했다. 또 후기의 경우 장학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명, 경제, 경영학과학생을 대상으로 고시만을 편성, 등록금 전액과 월30만원의 지급해 신입생장학금보다 재학생장학금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홍익이나 한양대의 재정 사정이 본교와 다른 것을 감안할 때 본교 나열대로의 특수성을 살린 신입생 장학제도 개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7월을 전후해 꾸러질 장학위원회에서는 입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타학교의 장학제도와 신중한 비교검토를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급격한 신입생 장학금 '사태'로 학교발전 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안될 것이다.

(박기철 기자)

## ◇ 시국관련 미등록제적생

이제 졸업식이 끝나면 동학은 새로운 신입생 맞이하기가 여념이 없을 것이다. 재수 삼수까지 헤가면서 어렵게 들어온 대학이만큼 모두가 환영해 출반한다.

그러나 매년 이시기가 되면 학교주의를 받으며 학교측의 불합리한 모습과 냉담함에 늦겨울 수위를 타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시국관련 미등록제적생이 그들이다.

올해도 반미구조적사건과 관련된 1년6개월형을 받았던 황의수(불교86학번)군, 김인영(영문87학번)양동이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학우들과 재회의 기쁨도 장만되었고 당장 자신들의 근거지인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미등록 제적학생을 대상으로 복교가 약관명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지금은 시효가 지나 말뿐인 제도이며 '6공연 정치범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헌정부에 기대할 수조차 없는 방법이라는 게 학교 한 관계자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다른 학교에서의 예를 통해 한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서강대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해 등록이 불가피함을 위해 '휴학기간을 1학기로 원회화하지'만 가장승인에 의해 6년한도내 재휴학이 가능하다'고 학칙에 명시하고 몰질적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배려를 하고 있다.

이같은 미등록 제적생 방지를 위한 학교측의 배려는 국립대인 전북대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 1년6개월이상 형반으면 '제적' 휴학기간 연장 제도 마련시급

원래 우리학교의 규정에는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학칙 제11장 49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받은 이들은 1년의 휴학기간이 끝나면 가족에 의해 고소한 뒤 등록금 전액을 학교에 납입시켜야만 제적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역기간중 등록금을 내지 못해 미등록으로 제적된 본교 학생은 89년 대통령 시행령 이후 1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확한 시국관련 미등록제적생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가 황의수군과 함께 학적과를 찾았을 때 학적과에서는 '부담한 자료 없다', '항부로 열람시 서류가 아니더라도 공개를 꺼려했다.'

이처럼 학교측이 매년 일어난 미등록 제적학생들의 복교부정을 꺼리는 것은 학칙으로 보장되는 어떠한 제도의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확실한' 여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학교측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라면 학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나 대통령 시행령(특례 제입학)이 발효할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88년 이후 졸업정원제가 폐지되면서 학과 정원수의 1.5배 가량의 학생이 졸업하는 터이고 보면 사실상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도 지난 87년에 한번 실시되어 83년 12월 22일부터 87년 7월 10일 까지의

물론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시국사범으로 2년6개월형을 받고 출소한 전복대상 김아래군 같은 학교측의 배려로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현 상황에서 복교의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학교측의 배려가 우리 학교에선 무성의 하다는게 황의수군의 말이다.

"복교를 위해 학과, 학적과 등 백방을 꾸며 다녔지만 '교육부의 지시가 없는 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고, 이렇다할 자료제공, 격려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총학생회 산하 학원지주회 투쟁위원회(위원장=한승우·경제4)도 그당도할만한 대안마련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총학생회 산하에서 복교희망자를 접수하고 복교대위를 꾸려 학교당국에 꾸준히 건의했던 예에 비하면 시국사범 미등록 제적학생들은 오로지 독자적인 방법 모색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자위가 아닌 타의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당국, 학생 모두 따뜻한 동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한 제도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자신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시국관련 미등록 제적학생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의 과감한 제도마련 뿐이다.

(박수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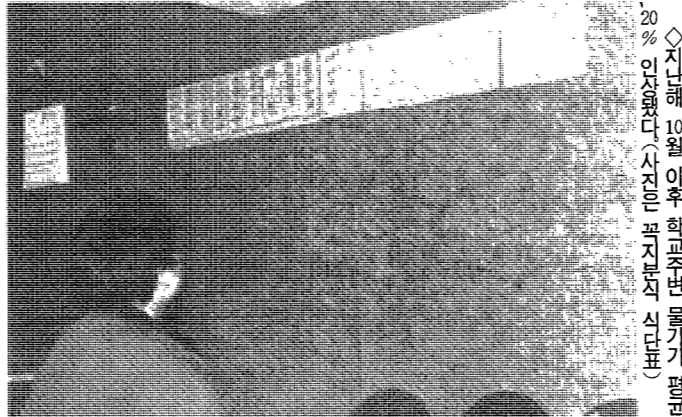
## 학교주변 음식값·문구류 평균 20%이상 올라 정부, 물가잡기보다 '표잡기'에만 고심

물가가 뛰고 있다. 지난 16일 시내 내버스 요금이 일반의 경우 1백70원에서 2백10원으로 23.5%, 좌석은 4백70원에서 5백원으로 6.4%가 각각 인상됐고, 이에 앞서 수도권 전철 요금도 지난 1월 1일 학생 정액권의 경우 6천5백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조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를 가가진으로 0.6%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교통요금 인상이 기타부분의 물가인상요인에 차지하는 위치로 볼때 '날뛰는 물가'라는 표현이 국민의 피부감각에 더 가깝다.

더욱이 전국 6개도시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20일 36.6% 임금을 인상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6개 도시에서 파업이 일어날 것을 결의했고 수도권의 전철요금 또한 올 상반기 중으로 10%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의 물가도 작년 10월 이후 평균 20~30% 상승했다.

'꼭지분석'과 '동구류'의 경우 설날을 전후로 라면이 8백원에서 1천



원으로, 순두부·된장찌개 백반이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외에도 풍류한마당, 이서방 내 통 학교주변 주요음식점도 지난 10-11월을 전후로 이미 가격이 상향 조정돼 대학주변의 음식점이라고보다 대학생에게 '고급스런' 음식점으로 탈바꿈했다.

문구류의 가격도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인상에 속기를 문화본래도나미 칼라볼펜의 경우 1백원에서 1백50원으로 50% 올랐다. 동국문구 아저씨는 "연습장의 경우 문구

업체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비록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실제 매수에 10여명 줄어 판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귀띔했다.

또 본교 학생들이 잘 이용하는 '인산'의 복음료의 경우 주변물가에 편승, 지난 2월 1천7백원에서 2천원으로 15% 인상됐다.

이렇듯 총선을 앞두고 대다수의 상인들이 인건비, 소비물가 인상등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6공란'이란 정치적 상황과

총선이라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영환(경제학)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87년 대선 때와 같이 5~6조원의 선거비용이 풀릴 경우 물가인상에 대한 약속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하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선거비용으로 대거 투입될 경우 제조업들은 저조하게 되고 선거비용의 유희로 수효는 답중함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선거자금 유희에 따른

극심한 물가상승을 경고했다. 대학가가 대학생들을 고역으로 한 소비 절제적 업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올해는 대학원의 문화생활과 공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어느정도 극에 달할 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표'란 의문이 하나있다. 누가 우리 경제를 이끄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회부)

매킨토시 클래식 II /스타일라이터

# 매킨토시

특별할인판매

40% OFF

3,190,000원 → 1,925,000원 (부가세 포함)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의 명문대학에서 개발한 6,000여종의 전문분야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

매킨토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Mac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방을 공개합니다.

시간: 매일 오후 1시 - 오후 5시  
장소: 엘렉스 센터 추무로점 (추무로 전철역 앞)

매킨토시 클래식 II 구성

- 16MHz MC 68030CPU 내장
- 한글Talk™ V7.0제곱 (매킨토시용 한글 원도용 OS)
- 스프레드 시트워드 임·출력기를 내장
- 나이스(한글, 한자, 그래픽 워드프로세서) 제공
- ElectBBS (전자서신/통신 프로그램) 제공
- 하이퍼카드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 제공
- 마우스(Mouse) 제공
- LAN기는 내장

스타일라이터 (Style Writer)

가늌과 가격의 혁신으로 더욱 새로워진 개인용 프린터인 스타일라이터는 한글, 한자, 그래픽, 사진까지 편집하여 출력할 수 있는 가격에 성능이 뛰어난 일크레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 해상도: 360DPI (Dots Per Inch)
- 프린터방식: Thermal Ink-jet
- 날장 자동공급장치 포함

엘렉스 컴퓨터 전문대리점

## 필로그 컴퓨터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35-2  
광화문점: 737-9999 추무로점: 737-8888

SINCE 1961

개원 31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종각역 TEL: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TOEFL GRAMMAR, VOCAB 22000, TOEFL L-C, TOEIC L-C, TOEFL 600

이커어 HEARING, 상문종합영어, 성문기보영어, TOEFL TIME, 영문-영문, 영 어 회 화, TOEFL L-C, GRE 2000, M·A English

일어·독어·노어 (초·중·고급) 일 어 회 화, 일본문화, 라시어, 독일 어 (초·중·고급), GMAT 700

#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가진 Level별 학급편성
- 출발 Level로 구성된 12명 정원제
- 2인1방 학습방식
- TESL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군인 강사진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1~3, 토·일 4~6시간

PAGODA LANGUAGE SCHOOL

종로 2가 파고다(금원역) 274-4000  
강남 남구역 동양대교로 515-4020



# 진통 겪는 신규 교수 초빙

## 학생·교수 합의사항 학교당국서 무시 학내 민주화에 뒷걸음...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캠퍼스 8개학과, 경주캠퍼스 17개과 등 총 25개과에서 예정되었던 92학년도 신규교수 채용은 각학과 교수·학생측과 학교당국간의 마찰이 계속돼 19개과의 교수채용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교수채용안이 확정될 지난 24일의 제1백14회 재단이사회의 인사제정된 학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인철, 화공, 산공과이며 경주는 의대 7개전과와 한의대 2개 전과, 국문, 사회복지, 전산, 산업안전공학, 정보관리학과 등이다.

올해 신규교수채용과정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예년과 달리 무역학과, 경제학과, 철학과 등 학과내에서 활발한 학생참여와 교수·학생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학교당국은 학과내 합의를 무시하고 지난 24일 서울캠퍼스 8개과중 3개과만 신규교수영입을 마무리했다.

특히 생체조직학이 반영되는 형태를 띠며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에는 총장과 학과내 합의 추진 1순위 후보자와의 면담이 있었지만, 이후 총장은 후보자의 종교문제와 관련된 문서급증 등을 이유로 삼아 총장 미결재 상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



◇무역학과 학생들이 지난 15일 '기반적 교수채용 반대'를 외치며 분관사위를 가졌다.

무역학과 학생측은 분관 사위, 건의서를 학교측에 제출하는 등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무역학과와 함께 적극적인 학생참여가 이루어진 경제학과 교수채용은 학교측이 후보자들의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할 것을 제의했으나 학생회측으로부터 강한 의욕과 반발을 사고 있다.

철학과는 교수·학생 합의하에 '적임자가 없어 연기결정'을 내렸으며, 식공과는 과교수들만의 합의로 다음학기 연기 결정을 내린 상태다.

지난해 교수채용자가 정해졌던 인철과를 제외하면 올해 학생·교수합의하에 이루어진 과

수채용은 한과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교과과정학생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수채용과정에서 학과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학교측의 태도는 학생참여 배제를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총장 복지장학 인원 감소 근로복지장학 수혜자는 늘어

교내 장학금 가운데 총장복지 장학금수혜자는 작년 2백명에서 1개학과에 1명꼴인 52명으로 대폭 줄고, 근로복지장학금 수혜자는 작년 1만999명에서 1백 20명으로 11명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총장복지장학금은 작년 대비 1천4백80만원이 감소하고, 근로복지장학금은 8백만원이 증가한다.

지난 16일 확정된 이러한 학교당국의 방침에 대해 장학과 한 관계자는 "총장복지장학금은 80년대초 과의폐지운동후 학문장려를 위해 지급했으나 과정원간의 인일한 안배에 지나지 않았다"는 오류점을 극복, "장학금수혜자의 수보다는

실질적인 효용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근로복지장학금수혜자를 늘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입생 장학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따른 기축제정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일고 있다.

한편 이번엔 증원된 근로복지 장학금은 비상계획과, 취업과, 장외관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병욱 교수 정년**  
김병욱(교육학)교수가 오는 29일자로 정년퇴임한다. 김교수는 1926년 9월17일생으로 오스트리아 켈트부르크 대

## 윤은숙-김춘식 동문 문단 데뷔 신춘문에 소설·평론 당선

92년 신춘문예에서 본교 윤은숙(국문 80졸), 김춘식(국문 91졸) 동문이 동아일보 단편소설, 세계일보 평론에 각각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주부인 윤동문은 '상자를 찾아서-고박사님께 드리는 말씀'의 실험적 단편으로, 윤동문은 '마지막 연애의 상상'을 텍스트로 소설가 이인성문을 써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윤동문의 경우 포스트 모더니즘 기법을 사용한 실험적이 신춘문예에서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기성문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한편 90년 조선, 세계일보 등 3개 일간지 신춘문에 평론을 휩쓸어 후 동문단의 창작 강세에 더해는 새로운 '비평강제'현상이 두드러지게 최근 본교 신춘문예 당선분야의 특징이다.

## 한의대 의료봉사

경주캠퍼스 한의대 소속 의료봉사단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청송군 등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의료봉사는 청심회원 32명이 1월22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청송군 부남면 일원, 동현회원 33명이 23일부터 28일까지 경남 양산군 장안읍 일원, 한백회원 23명이 24일부터 29일까지 경주군 산내면 일원에서 각각 활동을 벌였다.

한편 이번 의료원 참가팀에 따르면 "근육골격관계 질환의 치료를 바라는 주민이 31.2%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 한의사 합격 87.8%

지난 1월21일 실시된 제45회 한의사국가고시에 본교에서 총 1백56명이 응시, 1백37명이 합격해 87.8%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함께 가자! 우리' <지난 21일 양평 프라자 리조텔에서 열린 예비 학교 새내기들이 어우러져 공동체 놀이를 하며 집단 도약을 다짐했다.

## 새내기 주인 의식 드높인 한마당 2박3일 예비학교 각 단대별 행사로 나눠 진행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회장=이광집·진기4)는 92학년도 신입생 예비학교를 신입생 1천1백32명, 전학요원 및 재학생 2백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양평 프라자리조트에서 가졌다.

이번 예비학교는 예년과 달리 10개 단대중 법과대, 농과대, 공과대, 사법대, 예술대가 1차로 2박3일의 일정을 마친 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문과대, 이과대, 사회과대학, 이부대 등이 일정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뤄졌다.

행사취지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신입생들의 대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통해 대학의 새로운 주인임을 자각시키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단대별로 강의실, 강당 등에서 실시했다. 후기 합격자 등록마감일(지난 17일)관계로 양일간 나눠 실시된 이번 학교취체 예비학교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부속 기구이용과 수강신청등의 학사 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전학복원 '복지학교' 개최

생협-생활문화운동 활성화로

전국학생복지위원회연합(전학복원) 주최로 열린 복지학교가 지난4일부터 16일까지 생활협동조합, 생활문화운동등의 주안점을 가지고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본교를 비롯한 25개 학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복지학교는 학생회가 학생복지위원회와의 관계를 모색하고 생활

문화운동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총화하는 장이 마련됐다.

## 교수채용전선에 이상 있다

○...신학기에 강의를 하게 될 신규교수채용과정에서 학교당국의 석연찮은 '유보적'인 자세라는데.

무역학과와 경우, 3년동안이나 교수채용이 연기되면서 이번 학기에는 교수, 학생의 단장일치의 합의를 거쳐 올린 제1순위 후보자가 학교당국에서 종교문제와 관련된 문서의 발급절차의 하

자를 이유로 인사제정을 유보하자 무역학과 교수, 학생들이 난감해 했다고.

합의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행동을 달리하는 학교당국에 본 회전 무대자가 드리는 고언은 "뽕 겹했다고 벼가 콩고될 땐 언 제고, 이렇게 저렇게 따돌리는 심사를 앞당길것이야"

## 남북합의서...악법철폐에 확실한 근거가 돼야

인으로서의 학교, 그리고 재단의 책임의식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 그것.

총학생회측은 학우대중들을 수 입을 받은만큼의 내용있는 협상과 투쟁을 담보해내는 주인 의식이 더 고안되어야 한다며, 또다른 상대주

입을 학교당국에 위임했다"고 태연한데...

등락금은 해마다 두자리수 인상에 재단전입금은한자리수 교수로 관망만 끼고 느긋하기만 한 재단에 게 한학우는 "주인이 주인다와야 할지"라나.

## 아직도 겨울인가봐

○...바야흐로 남북합의서가 한반도를 통일일로 휩싸이게 하는데, 아직도 남한엔 찬바람만 생생.

연유인즉, 남북합의서 발표로 남북의 양체제가 인정된 가운데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이법으로 1천6백여명의 양심수들을 구속하고 있어 악법

방학기간중엔 매주 화요일 오전 2시간 단교로 임부가 이뤄져 실질적인 진료의 기능이 원할치 못했다고.

이해는 지난해 9월 새로 부임한 보건소장님이 강의와, 부속한방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의중에 보건소 업무까지 맡아야하는 그야말로 1인3역의 직무를 맡게된 피치 못할 사정때문이었다.

## 화요일에 아파요!

○...본교의 후생복지관련 부속기관중 가장 중요하다는 '보건진료소'가

방학기간중엔 매주 화요일 오전 2시간 단교로 임부가 이뤄져 실질적인 진료의 기능이 원할치 못했다고.

이해는 지난해 9월 새로 부임한 보건소장님이 강의와, 부속한방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의중에 보건소 업무까지 맡아야하는 그야말로 1인3역의 직무를 맡게된 피치 못할 사정때문이었다.

이를 안 한 학우 "화요일이 아닌 평일은 아무쪼록 몸조심 해야겠네"라며 푸념.

## 직원노조 설문조사

### 호봉-급여체제 개선수급 69.2%

직원노조는 지난 1월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92인근협정 및 단체교섭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총 280부를 배포, 103부를 회수(회수율 36.8%)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생활비 수준이다 44명(43.3%) △년전에 비해 생활수준은 변함없다 59명(56.7%) △현행 호봉 및 급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71명(69.2%) △'92년체협약에서 주력할 사항은 임금인상이다 43명(41.3%) △본교의 인사행정은 그저그렇다 50명(48.1%) △현제의 근무평가제도는 그저그렇다 61명(59.6%) △등록금 협상시 노조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39명(37.5%) △사부, 기능직 모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33명(31.7%) △사용자측 거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동으로 관철시키려 노력은

불기하다 58명(55.8%) 등이

한편 직원노조는 이번 설문 조사를 객관적 평가자료로 하여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안을 오는 27일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 배형 교수 수상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배형(경제학)교수가 '한국경제학회'에서 학문발전을 위해 지난 83년부터 소장학자들에게 주어온 '청람상'의 금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배교수의 이번수상은 'Multi-trade Bargaining, 1991' (Journal of Economic Theory)과 A Price-Setting Supergame Between Two Heterogeneous Firms' (European Economic Review, 1987) 등 외국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선정된 것으로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있게 된다.

# SAM YANG GROUP

##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미래는 5년, 10년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미래는 다음세대에서나  
누릴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가꾸어 가는 슬기와 의지  
그것만이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삼양은 풍요한 미래사회의 주인이 되고자  
모두가 한결같이 책임과  
창조의식으로 오늘 속에  
미래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삼양사 (化 纖, 營 養, 飼 料, 水 産, 精 密 化 學)
- 삼양중기주식회사
- 삼일도양주식회사
- 삼남식유화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신원주주식회사
- 대한 실업 피아버
- 삼양종합연구소
- 양영회
- 수일정화학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 문화욕구 채워주는 무당 역할

## 학내 문학예술학생연합(건)을 찾아

지난 13일 학내문학예술학생연합(건준위 위원장=이태범·철학자, 이하 학문연)은 학생회관에서 조촐한 입학식을 가졌다.

지난해 봄 문학, 노래, 그림 등 학내 다양한 문예인들이 장르별 연합을 피하다가 이번 겨울방학동안 많은 고민과 좌절, 논의를 거친 끝에 모든 문예패를 포괄하는 조직의 뼈대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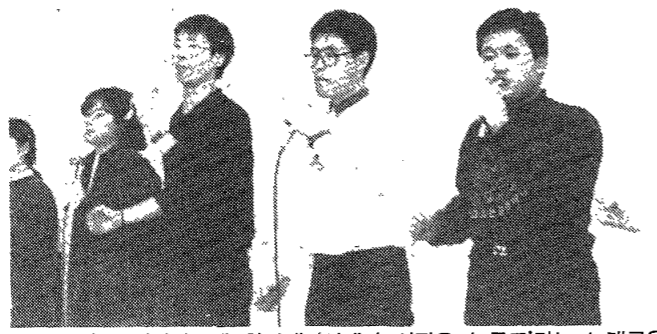
현재 노래패 협의회(건), 단과대 풍물패 연합, 동국문학회, 디디들로 구성된 학문연은 그동안 '문예활동은 곧 운동권'이라 여겨져 왔던 인식을 깨뜨리고, 또 모든 동국인이 공유하는 조직이 되고자 만화, 불교화장단, 탈 등 모든 문예패와의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학문연의 건설은 크게 세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모든 문예패를 포괄함으로써 노래, 연극 공연, 영화상영, 문예교실·강연회 개최 등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했던 행사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급해 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금보다 더욱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 통일된 내용으로 각 단과체들을 지도함으로써 하나로 묶어내 학문연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단과체 개개의 역량 또한 강화시키는 것이다.

한편 문예패의 활동정도도 따라



◆신인생 예비학교에 참가해 '언제나 시작은 눈물'이라는 노래극을 공연하고 있다.

### 범문예패조직... '운동권'이라는 인식 깨뜨려 총학 문화부와 명확한 관계설정해야

학생들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욕구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는 곧 문예패의 역량을 나타내다 하겠다.

이에 학문연은 전대학 문예일꾼 간부수련회 참가, 동악 겨울 노래 학교·풍물학교 개최, 그리고 신인생 예비학교에 참가 '언제나 시작은 눈물'이라는 노래극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각 장르별 지도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건준위'라는 꼬리표를 떼는 일은 탄탄대로만은 아닐 것 같다.

우선 총학생회 문화부와 종적관계가 아닌 횡적관계가 요구된다. 위원장 이준은 "각 문예패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행사를 이끌어 가는 것부터 학문연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학생회에서 요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던 문예패의 활동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것이 '결합'과 '통일된 지도내용'의 문제이다. 범문예패 조직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 무시한 채, 종종 보아왔듯이 각 구성원이 갖고 있는 소위 NI(나)나 PD(나)의 정치적 색깔만을 강조한 다면 학문연은 결국 '운동권'이 될 수 밖에 없고 통일된 지도내용도 할 내율이 만무하다.

학생들이 갈망하는 좋은 노래, 영화, 연극 등을 전달하고 또 구성원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퇴폐·향락적인 대학문화를 율동해 세우기 위해 학문연의 건설은 시급하다.

완전한 학문연은 건설하는데 있어 앞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1년여의 길고 고된 준비기간이 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제기했던 어떠한 문제들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경애 기자>

## 잠깐 생각해봅시다 ① 이런 졸업식 어때요?

끝마친다는 것은 또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출발의 지점과도 같은 것임이다.

꽃다발을 한아름씩 안고 축하와 격려속에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졸업식이 한창인 요즘.

그런데 대학의 졸업식은 어떤지 좀 허전하고 싱거운 느낌마저 드는데...

졸업식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대다수고 졸업식날의 풍경 또한 예전과 달라 그저 사진한방 보고나면 그만.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70년대에 유행했던 '졸업 축하 가마대 행진'이라는 것은 졸업식을 하는 이들과 축하객들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다고.

현재 요즘의 졸업 한참전부터 벌써 '취업'이 되어 어엿한 사회인이 된 학생들은 바쁜 일정속에서 열명동망 치워야만 하는 졸업식.

날로 각박해져가고 바쁜생활이라는 말이 이젠 너무나 당연시 돼버린 때에 이제부터라도 졸업식후에 사재간 딱질러 한 잔씩의 술배를 나눠 자리를 마련해 보면서 조금씩 잊혀져가는 우리의 '정'과 형식보단 '의미'를, 그리고 여유로운속의 '낙담'들을 되찾아 봄이 어떨런지... <문화부>

## 문화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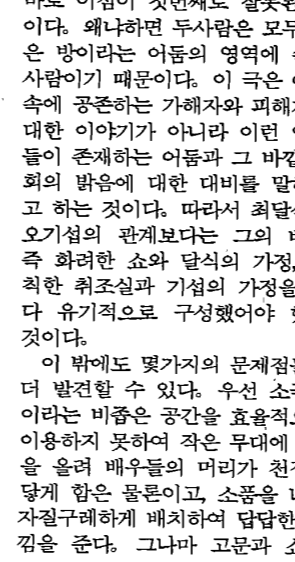
### 새로나온 책

◆민들레처럼... "민들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밭길에 짓밟힐지언정 논리에 꽃으로 살지 마시라. 흰 백합 진한 장미의 화려함

## ‘붉은방’과 ‘고문실’의 사회모순 드러내

바로 이것이 첫번째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두사람은 모두 붉은 방이라는 어둠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극은 어둠 속에 공존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라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존재하는 어둠과 그 바깥 사회의 밝음에 대한 대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달식과 오기섭의 관계보다는 그의 배경, 즉 화려한 쇼와 달식의 가정, 최칙한 취조실과 기섭의 가정을 보다 유기적으로 구성했어야 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몇가지의 문제점들을 더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소극장이라는 비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작은 무대에 2층을 올려 배우들의 머리가 천장에 닿게 앉은 물문고, 소문을 너무 자질구레하게 배치하여 답답한 느낌을 준다. 그나마 고문과 쇼의



‘붉은방’은 소 무대와 고문실, 평범한 가정의 대비를 통해 이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있다.

### 불법행위에 무디어진 현대인 자극 필요이상 무대장치 조잡한 연출 아쉬워

장면을 위해 앞쪽은 비워두고 모두 뒤쪽으로 몰아붙여 매우 보기 싫은 무대를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무회들이 다 좋은 몸으로 추는 춤과, 흡사한 장면에서 관객을 우롱하는 스트립 아닌 스트립은 그 목적이 아마도 보다 많은 관객의 동원에 있었겠지만 전혀 취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확실히 못함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극의 감상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연출자의 계산착오이다. ‘붉은 방’은 이런 장면이 없어도 충분히 흥미로운 작품이다. 또 극의 전개상 그럴 필요도 없었다.

연극의 주제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오기섭

### 정승재 <대학원 연극과 석사과정·연극>

### ◆사랑청문회(극단 미래)... 황금단과 참나적인 쾌락추구로 변모해 가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뼈뼉이 애정관과 윤리관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마당형 형식의 풍자극.

3월15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단, 수·목·금 낮공연 없음). 세미예술극장, 763-5220

### ◆춤추는 풀벌(극단 여인극장)... 남북분단으로 인한 우리의 현실적 모순을 한가족의 만남을 통해 재조명한 작품으로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화해와 단합,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대한 진실한 해답을 말하고 있으며, 특히 중진 연극가 이진수씨의 열연이 기대된다.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오후 4시, 7시(단, 첫날 낮공연 없음). 문예회관대극장, 387-0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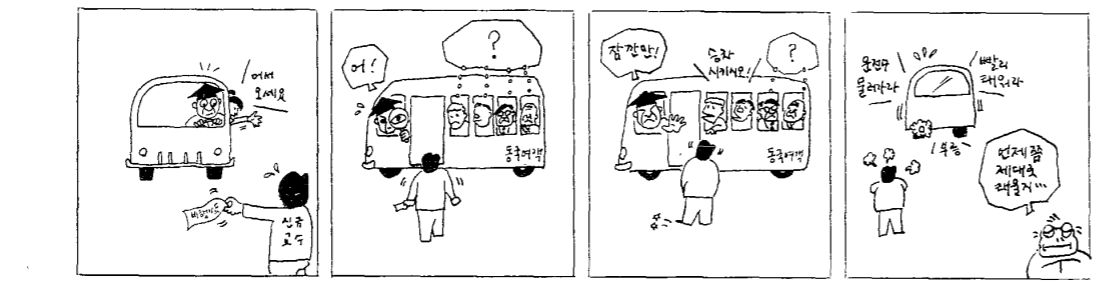
### ◆삼촌(극단 배우극장)... 극단

3월15일까지 오후 4시, 7시. 엘칸토예술극장, 701-8978

### 전시회

◆실로코드 학술조사 사진 자료전 - 중국·구 소련 불교문화 유적 조사... 작년 6월8일부터 7월5일까지 중국·서역의 사막남부, 구 소련의 초원로 등을 탐방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자료 전시회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잠실 롯데호텔 1층극장 기획전시실, 260-3461



김태준 (8)

# 사리돈 이름에 'A'를 더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리돈-에이입니다. 새로 나온 사리돈-에이



사리돈 30여년-사리돈은 장산이 세 번이나 변해오는 동안 수많은 분들의 두통, 치통, 생리통을 덜어 드려면서, 빠르고 순한 진통제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사리돈이 다른 성분들의 사리돈-에이로 새로 나왔습니다. 사리돈-에이. 이제부터, 새로 나온 사리돈-에이입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에 사리돈-에이

- 사리돈-에이의 효능 효과
  - 두통, 치통, 발치부 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건통, 리비통, 골관절염, 요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골관절염, 오한, 발열 시의 해열.
- 도움소매가: 100원 / 100원 ●완제수입품

Roche 제약 한국로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7-20 역삼빌딩 대표전화: 561-7200 FAX: 561-7201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